

# 인간과 자연, 역사와 문화 깃든 한국 정원의 미학



## 한국 정원 기행

김종길 지음

영남 지역은 사람과 자연이 많이 어울려서 주로 강학의 장소로 활용됐고, 서울과 호남의 경우에는 주로 교유와 풍류의 장이었다. 또한, 호남의 별서는 주로 넓은 들밭이나 멀리 산과 주변 계곡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에 있었다면, 영남과 서울, 충청의 별서는 주로 계곡이나 나무 숲에 있었다. 호남의 별서는 세련되고 섬세하여 여성적이라면, 영남의 별서는 호방하고 투박하며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별서들은 세도가들이 소유했던 것인 만큼 화려했다. 충청은 영남과 유사했다. 정자의 형태도 강학의 성격이 강했던 영남은 방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고, 은일의 기능이 강했던 호남은 방이 정자의 중앙에 있거나 없는 형태가 많았다. (본문 중에서)



바야흐로 여름이다. 맑은 계곡과 우거진 숲, 시원한 그늘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그렇다면 물과 숲, 그늘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바다를 떠돌기 십상이지만 정원 또한 이에 못지않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정원을 산책하는 코스 등을 다룬 '정원을 관람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썼다. 중국에서는 원림에 설치된 '유랑'의 장치를 매개로 경치를 감상하게 한다. 의도적인 장치다. 일본식 정원은 '순로(廻路)'를 설정해 감상 경로를 따르게 한다. 이 또한 의도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한국의 정원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의도나 인위가 아닌 다양한 시점으로 봐야 제 맛이 난다. 바로 인문여행이 김종길의 얘기다. EBS '한국기행' 등 다수 방송에 자문과 출연을 했던 그가 이번엔 역사와 인물, 교유의 문화공간인 한국의 정원을 모티브로 책을 냈다. 은일과 합일의 조선의 정원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원 기행'은 조선의 3대 민간 정원부터 별서·주택·별당 정원까지 아우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 정원은 언제부터였을까? 그에 앞서 정원(庭園), 정원(庭院), 원림, 별서, 별업 등 옛 정원 관련 명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원은 인간과 자연, 시대와 문화의 관계가 시각적으로 드러난 곳"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견해다.



조선의 3대 민간 정원인 윤선도의 보길도 부용동 원림은 섬 속의 낙원이라 일컬을 만큼 풍광이 아름답다. 사진은 세연정과 세연지.

〈미래의 창 제공〉

정원에 대한 정의부터 흥미롭다. 원(園)은 '큰 입 구(口)' 자 안에 '흙 토(土)'와 '작은 입 구(口)', '옷 의(衣)'로 구성돼 있다.

"큰 입 구(口)는 정원을 둘러싼 울타리, 즉 담장을 뜻하며 서구의 'gan'과 같다. 토(土)는 흙을 의미하고, 작은 구(口)는 연못을 뜻한다. 의(衣)는 옷을 뜻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식물을 가리킨다. 즉 정원은 울타리 안에 흙과 물, 여러 식물이 어우러진 공간을 의미한다."

조선의 3대 정원에는 윤선도의 보길도 부용동 원림, 양산보의 담양 소재원, 정영방의 영양 서석지가 꼽힌다. 저자는 보길도 부용동 원림을 '섬 속의 낙원', 소재원을 '완벽한 공간 구성', 서석지는 '상서로운 돌의 정원'으로 본다.

별서 정원은 모두 9곳을 소개한다. "다산 정약옹이 잊지 못한 별서"인 강진 백운동 별서를 비롯해 '왕이 찾은 인물을 위한 정원' 담양 명옥헌 원림, '흥선대원군이 기지로 빼앗은 한양 제일의 정원' 서울

석파정, '유배지지만 알려진 조선의 대표 정원' 강진 다산초당, '은자의 고요한 물의 정원' 화순 입대정 원림 등 각각의 정원이 주는 역사와 문화는 깊고 다채롭다.

가옥과 함께 달린 정원인 주택·별당 정원도 눈길을 끈다.

"대학자가 태어난 고택의 파격적인 정원" 아산 견재 고택, '하늘이 내린 명당의 별당 정원' 강릉 선교장 활래정 외에도 '영남의 빼어난 경승지' 봉화 청암정 등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해남 녹우당, 경주 교동 최씨 고택, 남원 몽심재 고택, 진도 윤림산방, 구례 운조루 고택에 대한 정원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아울러 우리 정원 보는 법을 별도로 소개한 부분도 있다. 현장을 답사할 때의 유용한 팁이나 직접 가지 않고도 글과 사진만으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세계적이 담긴 사진과 옛 그림은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미래의 창·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희아리를 도려내듯이

오형록 지음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글의 힘이었다." 해남 출신 '농부 시인' 오형록의 말이다. 최근 네 번째 시집 '희아리를 도려내듯이' (문학들)를 펴낸 시인은 고향 해남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다. 어쩌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은, 시의 소재를 찾고 이를 묘사하는 시작(詩作)의 그것과 닮았다.

고추, 오이 등 작물의 생태에서 사람살이의 희로애락을 발견하는 시인에게 시 쓰기가 그렇게 삶을 반성하고 미래를 꿈꾸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얼룩진 상한 고추를 일컫는 '희아리'를 표제적으로 삼은 것은 농부 시인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양한 작품 속 농사의 현장감은 여느 시인의 작품과는 다른 분위기를 환기한다.

"겨울잠을 즐기는 관리기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팔다리를 주물러 주며/ 일 년 농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나긋나긋 말해 주었다// 아직 숨을 몰아쉬는/ 트랙터가 다가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 이제 자네 차례야// 목구멍에 기름칠하러며/ 텅텅한 막걸리한 잔을 따랐다/ 화색이 반발한 관리기가/ 방긋 웃으며 일어섰다"

위의 시 '전문가'는 농기계마저 의인화한 작품이다. 시인이 얼마나 농사를 진정으로 짓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동심과 유머를 자아내는 작품은 농사에 대한 생명의식과 아울러 사물의 존재까지 아우르는 품이 넓은 시 세계를 짐작하게 한다.

허형만 시인은 "농부 시인으로서 우주와 한 몸임을 알고 있기에 그의 생명 사상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고 평한다.

한편 오 시인은 2014년 계간 '열린시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붉은 심장의 웅아리', '오늘밤엔 달도 없습시다', '꼭지 따던 날'을 펴냈다. 〈문학들·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의 작은 화판

권윤덕 지음

그림책 작가 권윤덕을 수식하는 말은 많다.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 1세대 대표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한국 최초 후보, '그림책 작가들의 작가' 등. 지난 1995년 오래된 집의 곳곳을 담아낸 '만희네 집'을 출발로 주변의 소재를 다룬 작품, 광주 5·18 등 역사적 사건을 그린 작품까지 다양한 책을 출간했다.

이번에 권윤덕 작가가 그림책과 함께 살아온 지난날을 엮은 '나의 작은 화판'이 나왔다. 책은 오직 '그림' 하나를 붙잡고 젊은 날을 방황했던 한 여성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30대 중반 우연히 그림책을 만났던 장면부터 이야기한다.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팔자가 세진다'는 아버지의 반대로 원치 않은 학과에 입학했으며 뒤늦게 들어간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미술운동과 결혼 이후 그림책 작가였던 지인과의 만남은 새로운 전기를 준다. 작가는 "오래 바라보아도 읊조리지 않는 사물들을 하나하나 보이는 대로" 작업한 책 '만희네 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험을 한다. 그림책에 대한 갈망은 더욱 깊어져 이후 아이를 때려두고 북경에 1년 간 그림을 배우러 간다.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그림책을 좋아하는지 고백하며 경험과 위로,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사실 이제 그림책은 비단 아이들만의 장르가 아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의 확장성이 가능한 이유는 그림책이 지닌 예술성 때문이다.

저자가 세상 앞에 단단히 섰던 것은 '작고 하얀 화판' 때문에 가능했다. 작곡가의 '악보', 문인의 '빈 노트', 편집자의 '책' 역시 화판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권윤덕은 말한다. 당신의 화판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고. 〈둘베개·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있어빌리티 교양수업

사라 허먼 지음, 엄성수 옮김

회의 중 신선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수업 시간에 친구보다 똑똑한 학생으로 보이거나, 모임에서 풍부한 지식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보다 '있어 보이는' 일이 또 있을까?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인문 교양 아카이브 '있어빌리티' 시리즈가 출간됐다. 이 시리즈는 '상식 너머의 상식', '생활 속의 물리학', '신비로운 인체', '역사 속 위대한 여성' 등 4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있어빌리티 교양수업: 역사 속 위대한 여성'은 발명, 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업적을 소개한다.

와이파이와 GPS를 발명한 여배우,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한 모험가,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과학자, 최초의 여성 탐정, 원발을 저는 스파이 등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패션, 영화, 음악, 문화 등을 다루는 '더 랩 매거진'의 편집자인 저자 사라 허먼은 우리가 몰랐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정치, 종교, 전쟁 등 세상을 이끌고 발전시켜 온 역사의 현장에는 늘 여성들이 있었다. 저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러시아 예카테리나 대제, 프랑스 잔다르크, 인도 사비트리바이 풀레, 오스트리아 리제 마이트너,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책은 총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선구자들, 사상가들, 종교와 문화, 정치, 페미니즘, 리더들, 전사와 슈퍼우먼, 죄와 벌, 미술과 문학, 소비즈니스 등 흥미로운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각 장의 말미에는 10개의 스피드퀴즈가 마련돼 있다. 〈도트·1만5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